



**SK에너지,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에 화물차 휴게소 설립**



부산항 신항 화물차 휴게소 준공식

SK에너지가 화물차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에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설립했다.

SK에너지는 박봉균 SK에너지 사장, 박완수 창원시장,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중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부산항 신항 화물차 휴게소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휴식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정비, 운송수선, 주차 등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로, 5만 2천㎡ 규모의 부지에 주차장, 휴게동, 주유소, 정비동, 검사동 및 세차동 등의 건물을 갖췄다.

이날 참석한 SK에너지 박봉균 사장은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신항에서 화물차 휴게소를 준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화물차 휴게소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과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향후 여수 국도변 화물차, 남대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소인 내트럭 하우스 설립을 확대하고 기존 항만 형 및 고속도로·국도변 화물차 휴게소들과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물류산업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3분기 매출 17조 2,096억원, 영업이익 8,619억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28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브라질 광구매각과 자회사들의 고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연결기준 매출액 17조 2,096억원, 영업이익 8,619억원, 당기순이익 1조 8,16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 1.5조원이 3분기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은 최태원 회장의 '무자원 산유국'에 대한 의지와 끈질긴 투자가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최태원 회장이 올해에도 수차례 자원개발 현장을 찾는 등 자원경영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는 예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 경질유 수출 증가에 따라 매출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올해 1분기를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당시의 1/3 수준인 2,539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2%에 머물렀다.

반면, 비석유사업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각각 영업이익 3,098억원, 1,985억원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견조한 영업이익을 견인했다.

**"최태원 회장, 윤활유 글로벌 일류 상품으로 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윤활기유 사업의 글로벌화가 또다시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윤활기유 공장 완공으로 윤활유 사업을 글로벌 성장 사업으로 확장시킨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는 윤활유의 글로벌 영토를 유럽으로 다시 한번 넓혀

놓은 것이다.

SK에 따르면 최 회장과 유정준 SK(주) G&G추진단 사장, 최관호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렉솔(Repsol) 본사에서 안토니오 브루파우 니우보 회장을 만나 스페인 남동부해안 카르타헤나에 그룹 III 윤활기유 합작공장을 준공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 회장이 지난 10월 그룹 내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하는 CEO세미나에서 다양한 협력방식의 글로벌 성장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후 첫 글로벌 성과가 윤활유 사업에서 나왔을 만큼 최 회장은 윤활기유 사업에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고 SK측은 설명했다.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SK루브리컨츠 스페인 합작공장은 일일 1만2000배럴(윤활기유 제품기준)의 생산규모를 갖 추게 되면서 유럽 공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전세계 윤활기유 수요의 40%가 유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SK루브리컨츠의 스페인 합작공장은 SK의 시장 점유율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SK 측은 보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연말 사회 공헌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 회사라는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소외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7만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의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올해 9년째 이어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울산, 대전, 인천 등 SK이노베이션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12개 지역에 7만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 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고유가 시대에 소외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 매년 100만 장의 연탄을 4,000여 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겨울나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임직원 숫자도 작년 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김장 담그기 자

원봉사와 연탄 나눔 자원봉사에 1,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에는 김장 나누기에 800여명, 연탄 나눔에 500여명 등 서울, 울산, 대전, 인천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1,300여명이 벌써부터 연말 자원봉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은 다음 달 초 임직원들과 함께 연탄 나눔에 나설 예정이며, 일부 부서는 부서원 전체가 김장 담그기와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부 사업부는 연말 송년회를 사회공헌활동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등 전 임직원이 뜻 깊은 연말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 SK에너지,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하는 건강한 겨울나기

SK에너지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지난 11월 1일부터 인천 내트럭하우스를 시작으로 12월 9일 남대전 내트럭하우스까지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8개 내트럭하우스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의 주요 고객인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고자 계획된 이번 행사는 내트럭 멤버십카드 또는 신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보유한 화물운전자 누구든지 내트럭하우스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는 검진 2주 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검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형병원이 아닌 부산항, 제주항, 인천항 등 전국 물류 운송 중심지에 설립된 화물차 전용 휴게소인 내트럭하우스에서 진행돼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SK에너지 관계자는 "생업으로 인해 건강 챙기기가 어려운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2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챙기는 이번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SK에너지의 주요 고객인 화물차 운전자 분들을 위해 무료건강검진 정례화 검토를 비롯 내트럭 장학금, 화물차 전용 휴게소 내트럭하우스 설립 확대 등 화물운전자들의 생활을 고려한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에 적극 동참**



GS칼텍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난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이주호 장관, 허동수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GS칼텍스가 추진할 교육기부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인재양성, 교사연수, 환경교육, 여수지역교육 지원 등 네 분야이다.

이번 MOU 체결식에서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교육기부는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좋은 교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과부와와의 교육기부 협약체결을 계기로 더 큰 미래를 위한 GS칼텍스의 교육기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11 ISWA 세계 대회 참석**

GS칼텍스는 지난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1 ISWA(International Solid Waste Association, 국제폐기물협회) 전시회에 참가했다. 자원순환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본 전시회에는 세계 60 개국 1만 7천 여명의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였으며, 특히 GS칼텍스의 WTE(Waste to Energy) 사업과 플라즈마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허동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GS칼텍스는 종합 에너지

리더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대회를 통해 폐기물이 가치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서울 Kixx배구단 출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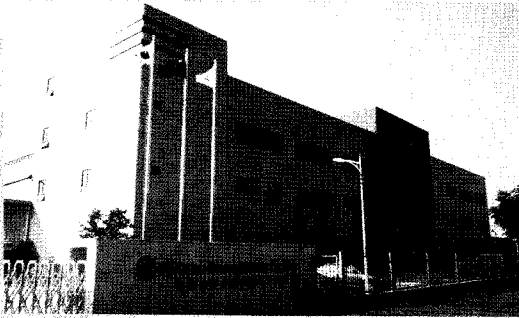
GS칼텍스 서울 Kixx배구단이 지난 10월 11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V리그 새 시즌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출정식에는 구단주인 허동수 회장과 나완배 동호회장 등 GS칼텍스 배구단 동호회가 함께 하여 새 시즌 개막을 앞둔 선수단을 격려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승을 기원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모든 선수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수 있어야 더 큰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1년도 GS칼텍스재단 제2차 임시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7일 GS칼텍스재단 이사회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하여 내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GS칼텍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울마루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조형물로 건설될 예정이며 또한 전체의 자원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여수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한편 예울마루 방문 후 여수공장 임원 회의실에서는 GS칼텍스재단 제2차 임시 이사회가 열려, 2011년도 사업추진 현황 보고와 내년도 예울마루 1단계 사업 완공을 위한 내용 등을 승인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허동수 회장은 '예울마루'의 성공적 완공과 장학교육 및 문화예술 등 일반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모두의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복합수지 사업 글로벌 경영 가속화**



GS칼텍스는 지난 10월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 시 우장(吳江)개발구내 3만3천㎡(약만평) 부지에 복합수지 중국 제2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중국의 3대 경제권역 중 화북(華北) 지방에 이어 화동(華東) 지방까지 사업 진출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GS칼텍스는 2006년 GS칼텍스(량방)소로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허베이성(河北省) 량팡(廊坊)시에 위치한 중국 제2공장을 통해 연간 4만5천톤의 복합수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GS칼텍스(소주)소로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이번엔 연간 3만7천톤의 복합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제2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GS칼텍스의 중국 복합수지 제2공장의 준공은 중국내 사업 규모 확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내년 말에 준공될 체코 공장까지 포함하여 글로벌 복합수지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 GS칼텍스 여수공장, 2011년 노사 문화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9월 26일 2011년 노사 문화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인증하는 제도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2005년 노사 화합 선언 이후 노사 현장의 실천을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노사 동반 성장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왔다. 그 결과 7년 연속 임금유임 및 임단협 무분규 타결, 노사 공동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한 일터 혁신 최우수기업 인증, 제2, 제3 증질유 분해시설의 성공적 완료, 국가 및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발전적, 모범적 노사 관계를 창출하여 왔다. 금번 노사 문화 대상 수상을 계기로 GS칼텍스 노사는 생산적 노사 관계 모델을 미래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성장,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 ■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7년 연속 사랑온도를 높이다!

GS칼텍스는 지난 10월 16일 '사랑온도 업(up), 지구온도 다운(down)'이란 주제로 열린 위아자 나눔장터에 참여했다. GS칼텍스는 처음 개최된 2005년부터 쉬지 않고 이 행사에 7년 연속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의 나눔장터 부스는 방문객들이 일찌감치 줄을 서서 내놓은 물품들이 모두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 기부 물품과 자원봉사 참여가 매년 늘 정도로 임직원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있어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 에너지절약축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GS칼텍스는 지난 11월 17일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제33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에서 에너지절약 유공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GS칼텍스는 최근 5년간 총 30만 TOE를 절감해 약 1,67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어 단체표창 중 가장 높은 대통령상을 받았다.

활발한 에너지투자과 다양한 에너지혁신 프로그램을 실행해 연평균 1.3% 에너지효율을 개선으로 세계 정유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전 세계 정유공장 연평균 에너지효율이 1%미만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혁신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8년 업계최초로 전담조직인 에너지효율화팀을 신설하여 에너지절약을 회사의 기업문화로 내실화했으며, 여수 생산본부에 밸류넘버원 콤플렉스(Value No.1 Complex)로 설정하고 효율개선 장기로드맵을 세워 세계 제1의 에너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실질적인 에너지효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S-OIL

## ■ S-OIL, 세계 최대규모 PX 생산시설 준공식

### S-OIL 온산공장 확장 준공식



## S-OIL

S-OIL은 지난 10월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인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미미 석유광물부 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S-OIL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알 팔리 총재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지역 국회의원, 협력업체 대표를 비롯하여 국내외 초청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S-OIL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증대하는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70만 톤의 파라자일렌(합성섬유 폴리에스터의 원료)과 연간 56만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을 갖추고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사를 통해 "오늘 S-OIL의 준공식으로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수입 원유를 정제를 넘어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산업으로 한층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S-OIL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이번에 준공한 S-OIL의 아로마틱 콤플렉스는 연간 34억벌의 옷감을 만드는 섬유 기초원료를 생산하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사실"이라고 소개하고, 이어 "S-OIL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S-OIL의 발전을 통해 고객과 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상생과 공존의 큰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 '소방의 날' 및 '지속가능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S-OIL이 지난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S-OIL은 화재진압과 재난구조로 분투하는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6년째 '소방영웅 지킴이' 캠페인을 지속하며 순직·부상 소방관 가정 위로금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S-OIL 아흐메드 A. 수베이 CEO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수베이 CEO는 지속가능경영 관리 및 전략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 S-OIL, 에너지업계 최초 'DJSI 월드' 기업 2년 연속 선정



에스-오일은 2011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이하 "DJSI")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산업별 평가 역시 2년 연속 석유정제부문 국내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됐다. DJSI는 세계적 금융정보회사인 미국 다우존스 인덱스(Dow Jones Indexes)와 스위스 투자평가기관인 샘(SAM)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중 상위 10%의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만을 선별해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평가에서는 국내 기업 16곳이 DJSI 월드 기업에 포함되었으며, 에스-오일은 지난해 국내 에너지업계 중 최초로 월드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0월 12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 ■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S-OIL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에서 S-OIL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체미를 도왔다.

S-OIL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지난 11월 3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연탄 5만장을 기부하고, 임직원 사회봉사단 70여명과 함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인 홍제3동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저소득 가정에 연탄 400장씩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3년째 연탄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수베이 CEO는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온정을 선물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 S-OIL, 학생 주유·충전원에 학자금 지원

S-OIL은 학생 주유·충전원 대상 장학금 전달식을 지난 11월 24일 마포 사옥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S-OIL은 학업과 병행해 계열주유소, 충전소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S-OIL은 총 47명의 학생에게 각 50만원

을 전달했다. 정병헌 상무는 주유·충전원으로서 친절하게 고객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꿈을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한불모터스와 ‘에코 연비마라톤’ 공동 개최

S-OIL은 한불모터스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5일 미사리 조경경기장에서 에코 연비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S-OIL은 2009년 상반기 이후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환경부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자동차 연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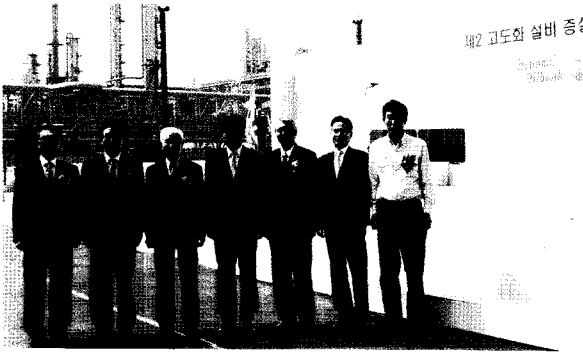
미사리조경경기장을 출발, 원주·홍천·수원을 거쳐 하남에 위치한 풍산신도시주유소까지 돌아오는 약 300km 코스 주행 결과, 구분석 고객(충북 청주시)이 리터당 51km의 연비기록으로 우승했다. 1등 고객에게는 에스-오일 주유상품권 200만원이 수여됐으며, 순위에 따라 주유상품권을 포함한 푸짐한 상품이 지급됐다.

### ■ 장애인 동반 ‘감동의 마라톤’ 아테네대회 참가 후원



S-OIL이 후원하는 ‘2011 감동의 마라톤’ 선수단이 지난 11월 13일 그리스 아테네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는 가수 ‘틴틴파이브’의 멤버인 이동우씨를 비롯해 총 10명의 장애인이 선발돼 S-OIL 마라톤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그리스 현지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감동의 마라톤은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S-OIL이 2006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현대-삼성, 담장을 가로지르는 상생협력



현대오일뱅크와 삼성토탈은 지난 11월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 등 양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오일뱅크-삼성토탈 수소혼합가스 배관망 개통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 십년간 같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서도 필요한 원료나 반제품을 선박으로 교환해 왔던 두 회사는 공장을 서로 연결하는 배관망 개통으로 물류비 절감 뿐 아니라 상호 믿음과 신뢰라는 더 큰 수확을 거두고 있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삼성토탈은 공장기동 중 발생하는 잉여 수소혼합가스를 현대오일뱅크에 판매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정제에 필수적인 고순도 수소 원료를 값싼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오일뱅크 유재범 생산본부장은 "양사의 협력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공정을 보다 안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토탈 이동호 공장장도 "대산 단지 입주시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사업으로 상생의 출발점이자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현대오일뱅크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 만큼은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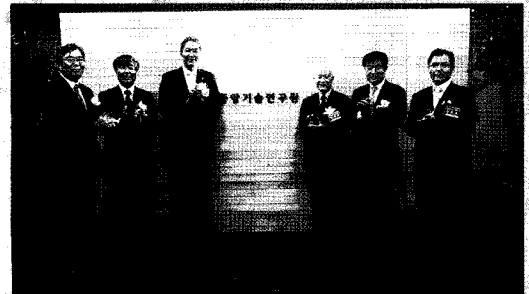
발벗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주유소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풀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 주유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도 사업 정지나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판교에 R&D센터 설립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R&D 전문 연구 센터인 '중앙기술연구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는 원유정제 분야에 치우쳤던 그동안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BTX, 윤활기유, 폴리프로필렌 유도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에 중앙기술연구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은 "중앙기술연구원은 현대오일뱅크의 미래이자 소프트웨어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며 "설비 고도화 1위에 이어 기술 고도화 1위를 달성해 명실상부 최고의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 현대오일뱅크, 신규사업 가속도 붙는다



### 현대오일뱅크 울산신항 유류저장 시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신항에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울산신항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과 한홍교 울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이체익 울산항만공사 사장, 조치현 한국항만기술단 사장, 손효원 현대에너지 사장 등 내외반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오일뱅크 울산신항 유류저장 시설은 울산신항 남항부두 8만 6,800 제곱미터(2만 6,000평) 부지를 매입해 건설하며 최대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40여개 총 30만 kℓ 규모의 저유소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권오갑 사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울산신항 유류저장 사업은 울산항 오일허브 계획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향후 정유 사업과 연관성이 큰 윤활기유, 프로펠린 유도체 등 추가 신규 사업에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신규 TV 광고 시행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1월 3일, 늘 고객 곁에서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TV광고 3편을 선보이며 신선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광고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월급 1% 나눔'을 소재로 11월 3일부터 한달간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광고는 유명 연예인 대신 급여 1%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케팅팀 허광희 부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광고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식품전문기업 SPC그룹과 마케팅 협력



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대 식품전문 기업인 SPC그룹과 마케팅 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월 2일 파리크라상 본사에서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과 SPC그룹 김창래 전략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PC그룹과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SPC그룹은 마일리지카드 제휴를 통한 고객유치, 상품권 가맹제휴, 유외사업 제휴, 유류구매 제휴, 스포츠 문화 공동마케팅 등 폭 넓은 제휴 관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